

136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3) 동일색으로 염색한 면과 울의 변색

□ 동일색으로 염색한 면과 울의 변색

- 전체가 무지 염색인 신사 재킷을 드라이클리닝 했는데, 소매 부분이 녹색 비슷한 반점으로 변색되었음.

해설)

- 이 제품은 몸판 부분은 울, 옷깃과 소매 부분은 면이라고 하는 매우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음. 면은 흡수성이 높고, 땀 등과 같이 물로 씻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는 수용성 오염을 흡수하기 쉬운 성질이 있으며, 반대로 울은 물을 흡수하면 섬유 표면의 큐티클(cuticle, 비늘)이 열리기 때문에 마찰작용으로 심하게 수축되는 성질이 있음.
- 면은 일반적으로 반응성 염료 등으로 울은 산성염료로 염색됨. 품질 표시 형태로 볼 때 매우 오래전에 제조된 제품인 것으로 추정되었음.



- 소재나 염색방법이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조합은 서서히 감촉이나 색조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됨. 특히, 빛이나 대기가스에 의해서 면소재 부분의 염료가 영향을 받기 쉬운 가는 섬유(기모)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큰 변색의 조건이 되고 있음.
- 이 사고는 수용성 오염성분이 남아, 반응성 염료의 가수분해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것으로 가스, 빛 등의 장기적인 영향을 받은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최종적으로 클리닝시 열화된 반응염료가 탈락되어 면부분만 반점 퇴색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www.textilecare.kr